

## 부모의 원가족 경험과 양육행동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 문 자\*(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전 연 진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강사)

김 진 이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과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는 것과 그 경로가 부모의 성과 자녀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는데 있다.

본 연구는 서울, 대전 및 부산시에 위치한 여덟 개 초등학교를 표집하여 이들 학교에 재학중인 4학년생 561명(남아 302명, 여아 259명)과 5학년생 686명(남아 333명, 여아 353명)의 총 1247명과 그들의 부모 1247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용 질문지는 각 학급의 교사가 실시·수거하였으며, 아버지용과 어머니용 질문지는 학교를 통해 배부하고 수거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은 전연진과 정문자(2003)가 제작한 원가족 분화 경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부모의 양육행동은 박영애(1995)의 양육행동 척도를 본 연구자들이 예비조사와 요인분석을 통해 문항을 축약한 것을 사용하였다.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와 하은혜(1997)가 표준화한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의 자기보고형(Korean Youth Self-Report; K-YSR)을 사용하였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측정 변인들의 기술적 통계치와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각 변인들간의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AMOS 4.0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은 딸이 지각한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딸의 행동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딸은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부정적으로 지각하였으며, 그 영향으로 딸은 행동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은 아들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통해 행동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경험은 딸이 지각한 부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행동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경험은 아들이 지각한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아들의 행동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딸과 아들 모두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부정적으로 지각하였고, 그 영향으로 행동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